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고건 前국무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가능”

5·31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혀왔음에도 그동안 말과 행동을 자제해 왔던 고건 전 총리는 최근 ‘희망연대’ 발족을 선언하면서 정계개편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일보는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고건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 철학과 비전, 정계개편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 위치한 고건 전 총리의 개인 사무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됐다.



만남사람 = 오주승 정치부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대해 혹독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서 소회가 남달랐을텐데.

▲(잠시 생각한 뒤) 한마디로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국민들의 애정과 기대가 높았다. 지난 총선에도 여당에 과반수와 과반을 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지난 총선에도 여당에 과반수와 과반을 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지난 총선에도 여당에 과반수와 과반을 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국민들이 고건 총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통합과 신뢰의 정치 필요”

▲국민들은 현재의 난관을 넘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부강한 선진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시기다.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의 수렴 시스템이 고장난 정치권은 국민의 소망과 꿈을 담아내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실사구시에 따라 민생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과 계층, 민족 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바로 통합과 신뢰의 정치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계개편 구도는.

▲구체적 정치 공화적 시나리오는 갖고 있지 않다. 그동안 중도 실용주의 개혁 세력의 연대를 주장해왔다. 이는 정파를 초월,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폭넓게 협조와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연대는 ‘국민과의 연대’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으며 창조적 실용주의의 확

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발족을 선언한 희망연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로 보고 있는데.

▲(단호한 표정으로) 분명히 말하는 데 신당 창당이 아니라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모태도 아니다. 희망연대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과 국가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운동 성격의 모임이다. 중도 실용주의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비 정치인,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개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엇갈려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등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 특히 오는 2008년은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은 시기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를 이끌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결단력과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5-6-7-8호선을 직접 계획하고 착공, 완공시켰다. ‘복마전’으로 불리던 서울시의 오명을 시스템 개혁을 통해 추방시켰다. 이는 강력한 결단력과 리더십의 산물이다.

정치적 신념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 1980년 5·17 당시 신군부가 탱크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5·17 비상계엄령을 강행할 때 나는 반대하고 사표를 냈다. 또한 1990년 임명직 서울시장 당시, 청와대의 한보에 대한 수사택지 분양 특혜 압력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리를 물러났다.

-지지를 거품론이나 중도 포기론도 제기되는 데.

▲거품론에 대해 종종 들어왔다. 그러나 나의

“與 국민과 소통 소홀 선거서 참패 실용주의 개혁세력 누구와도 연대 대권출마 결단뎌 앞만보고 가겠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일부에서 내각제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자주 교체되는 내각제는 분단 국가의 현실에 맞지 않다.

-유력한 자기 대권주자로서 비전은.

▲우선 선진국 진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시간은 없다. 우리나라는 비용의 중국과 기술의 일본 사이에 갇힌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오는 2015년부터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 성장 동력 재구축해야”

2015년까지 선진국에 진입 하느냐가 역사적 과제다. 하루빨리 성장 동력을 재구축, 10년 안에 개인소득 3만5천 달러를 뛰어넘고 사회안전망 정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전략과 비전을 수립,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국민적 합의

대한 지지가 어떠한 이벤트성 인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그동안 보여 왔던 나의 국정경험과 능력을 평가하고 보내는 신뢰의 표시다. 나라의 미래와 나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상 중이다. 늦지 않게 나의 결단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결단을 내리면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고 전 총리의 합리성은 인정하지만 보수적 성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친미 성향이며 상호주의적 대북 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는 중도 실용주의 개혁 노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키고 시장의 실패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생산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를 보수라고 한다면 ‘개혁적 보수’, 진보라고 한다면 ‘합리적 진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나는 친미라기보다는 옹미주의 입장이다. 실사구시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통일을 대비한다면 통일우호 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중국과 일본, 미국을 생각한다면 대답은 명확하다. 한반도에 영토적 욕심이 없고 역사적 갈등도 없는 미국은 우호세력이다.

대북 상호주의 노선을 지향한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며 자원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는 등 더욱 엄 그레йд이 돼야 한다.

“대미관계 실사구시 입장 접근”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대통령 탄핵은 한마디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국가 안보였으며 국방부를 통해 전국 지휘경계령을 내리고 NSC에 비상근 무령을 하였다. 이어 외교관계, 경제안정, 치안질서, 해외 신인도 순으로 점검하며 위기 상황을 진정시켰다.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나를 신뢰하고 적극 협조해 준 것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당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1970년대 후반 전남 지사를 역임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남도지사로 임명받아 짧은 기간 열정을 쏟았으며 당시 도민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키워주었다. 지금도 전남을 방문할 때면 나를 기르신 어머니 품에 안긴 기분이 든다.

“광주·전남은 어머니 품 같은 곳”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영산강 유역 개발이다. 당시 영산강은 전남 평야의 젖줄이면서도 매년 수해를 속령처럼 겪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 장성댐을 비롯, 4개 댐과 목포 하구 독을 건설했다. 여천공단 건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배후 도시를 생분면에 건설한 것과 광주권 개발 사업으로 하남공단 대역사가 기억에 남는다.

-호남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호남의 현안은 호남고속철, 전라선 복선 전철화, 광안 간-부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이다.

특히 호남은 새로운 21세기 비전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호남이 ‘환경해 경제권 중심지’로 부상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리=임동욱 서울정치팀장 tuim@kwangju.co.kr /사진=고경석부장 ksgo@kwangju.co.kr

고건의 사람들

외부 조직 ‘미래와 경제’ 그룹 싱크탱크역 정치권 신중식·최인기·안영근 의원 주목

대권을 향한 고건 전 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고건의 사람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인적 네트워크는 국무총리·서울시장 등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축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외부 조직은 고건 전 총리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미래와 경제’ 그룹이다. 회장인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 김상하 전 대한상의 회장, 이필삼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달 희망연대(희망한국국민연대)가 출범하면 ‘미래와 경제’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신중식, 이낙연, 최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열린우리당 몇몇 의원들이 수시로 고건 전 총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경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재순 전 국회의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동승 포럼’은 매우 한차례 고건 전 총리에게 조언하는 원로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건 전 총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은 향후 정치일정을 조정하는 역할과 ‘고사모’ ‘우민회’ 등 팬클럽 성격의 외곽조직 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추천하는 지역혁신성장체(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 「과제별 지원부턴」에 참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광주지역 전자회로모뎀 시제품생산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 이계법분야 지원서비스의 세부내용은?
3. 본사업 지원대상인 전자회로모뎀 시제품생산 역량강화 사업추진 기제